

‘원탁시회’ 문인들의 ‘가을 사유’

오늘 ACC호텔 1층서 시화전
결성 55년...국내 최장수 문학 동인
내달 1일 원탁시 67호 출판기념회
지역 원로 작가·문인들 문학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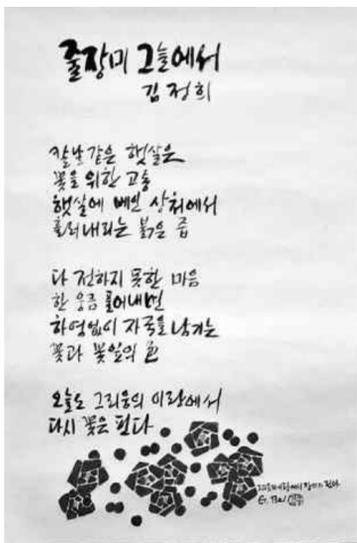


‘원탁시회’는 지난 1967년 광주에서 결성돼,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 동인이다. 올해로 동인 결성 55주년을 맞는 원탁시회는 전국 최장수 동인으로 범대순, 문병란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배출했다. 원탁시회가 만든 동인지 ‘원탁시’는 광주 동인문학의 발자취이자 그 자체로 역사인 셈이다.

당초 원탁시회는 광주 문단의 스승이었던 대형 김현승 시인의 영향을 받으며 문학활동을 펼쳤다. 범대순 시인을 비롯해 윤삼하, 정현용, 박홍원, 손광은, 김현근, 송선영, 황규련 시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원탁시회의 결성은 범대순 시인(1930~2014)이 주도하면서 발전했다. 범 시인은 ‘원탁’ 발기인으로 창립을 주도했으며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동인의 골격을 만들었다.

현재 원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교대 교수 염정권 시인은 “‘원탁시’는 에콜(ecole) 커뮤니티이기보다는 소셜(social) 커뮤니티에 가깝



다”고 밝혔다. 염 시인은 생전의 범 시인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원탁시회가 최근 ‘원탁시’ (67호)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와 시화전을 함께 개최해 화제다.

먼저 시화전은 29일 오후 1시 ACC호텔 1층 전실에서 열린다. ‘가을섬광의 들을무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화전은 회원들의 가을 사유와 감성이 묻어나는 ‘낭송시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원탁시회 회원인 김정희 시인에 따르면 이번 시화전은 시인들이 모두 시화전에 맞는 2편씩의 작

품을 제출해 이들 작품을 모티브로 김종 시인이 그림을 그렸다. 전시장에는 모두 36편의 시화가 내걸릴 예정이다.

전원범 시인의 ‘어머니의 강’을 비롯해 김정희 시인의 ‘출장미 그늘에서’, 강경호 시인의 ‘무궁화꽃’, 강대선 시인의 ‘가로등 밑으로’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원탁시 67호 출판기념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4시 ACC호텔 2층 공영장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원로 작가들과 문인들이 모여 문학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동인지 67호는 특집으로 가는 시인의 작품론을 다뤘다. 강대선 시인이 ‘소외된 타자를 향한 연민’을 주제로 가는 시인을 조명했다. 강 시인은 “가는 시인의 시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는 시에 나타난 차별 없는 흥의 순수성, 어머니의 가슴 같은 흥의 온기가 스며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한다. 특집2에서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고양이’에 관한 상상력’을 주제로 동인들의 작품을 토대로 김선기 평론가가 ‘응시의 다름과 같음에 대한 변주의 미학’이라는 렌즈로 시적 의미로서의 ‘고양이’를 분석했다.

각각의 작품을 허갑순, 함진원, 전원범, 전숙, 오대국, 염정권, 서승현, 박수인, 박만석, 김종, 김정희, 김은아, 김영박, 강대선, 강경호, 가는 시인이 상재했다.

한편 전숙 시인은 “올해 동인 결성 55주년 특별 기획으로 이번 시화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게 됐다”며 “반세기를 훌쩍 넘어가서 동인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문학적 열정과 노고 때문이다. 뒤를 이어 후배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 기대가 된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대 청년들의 피·땀·눈물



국내 첫 대학응원단 드라마

SBS ‘치얼업’ 다음달 3일 첫 방

‘치얼업’ 한지현·배인혁 “20대 열정과 에너지 보여드릴게요”

대학 응원단 소재 청춘물...“음악과 춤이 주는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것”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담은 SBS TV 새 월화드라마 ‘치얼업’이 시청자들을 찾는다.

‘치얼업’의 주연 한지현과 배인혁은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20대의 열정을 볼 수 있다”, “에너지가 너무 좋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치얼업’은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망해가는 대학 응원단에 모인 청춘들의 이야기로 SBS가 ‘카이스트’ 이후 23년 만에 선보이는 캠퍼스 드라마다.

배우 한지현, 배인혁, 김현진, 장규리가 연희대 응원단 테이아의 단원으로 분한다.

신입 단원 도해이 역을 맡은 한지현은 “전작 ‘펜트하우스’의 주석경 역)에서는 화내는 캐릭터였는데, 도해이는 밝고 귀엽다”며 “똥통 튀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테이아의 단장 박정우로 분한 배인혁은 “초반에는 ‘젊은 꼰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해이를 만난 뒤부터는 ‘허당끼’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응원단이라는 흔치 않은 소재의 드라마 그동안 해온 청춘물과는 다른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김현진은 테이아의 신입단원 의대생 진선호, 그룹 프로미스나인 출신 장규리는 테이아의 부단장 태초희 역을 맡았다.

김현진은 “진선호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

도 못 하다 도해이를 만난 뒤 사랑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느끼는 ‘직진남’이라며 “저항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며 웃었다.

장규리는 “배우로 전향하고 처음 보여드리는 작품이라 부담감이 있었지만, 응원해주는 분들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첫 연기에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태초희는 시원시원하고 거침없어 모두에게 인기 있는 걸로 러시 캐릭터”라며 “춤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체력은 자신이 있었는데 응원단 안무는 동작도 크고 에너지도 써야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근력운동을 했다”고 전했다.

뜻뜻한 응원단원들 사이에서 배우 양동근은 학교 앞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배영웅으로 출연해 청춘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양동근은 “예전에 캠퍼스물을 할 때는 저도 후배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배 포지션”이라며 “괴짜처럼 보이지만 젊었을 때 한가닥 했던 캐릭터여서 살짝 춤도 춘다”고 귀띔했다.

연출을 맡은 한태섭 PD는 응원단의 무대를 위해 음악, 춤 등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드라마의 음악감독으로는 페퍼톤스의 신재평을 섭외했다.

한 PD는 “음악과 춤이 주는 전율을 시청자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극 중 단원들이 많은 곡을 연습하고, 춤을 추며 땀 흘린 흔적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공감 가능한 20대 찬란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응원단의 모습을 통해 청춘들이 느끼는 날 것의 감정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다음 달 3일 첫 방송. /연합뉴스

5·18 민주광장, 축제로 물드네

다음달 1~3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예술무대 산의 ‘페스타-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광주문화재단 제공>

‘시민, 예술에(愛)물들GO!’

2022 광주프린지페스티벌(민주광장 프린지)이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프린지페스티벌은 우수한 거리 공연을 선보인다.

먼저 1일에는 국제환경연극단체 ‘나무닭 움직임연구소’와 100인의 시민이 함께하는 춤길 퍼포먼스 ‘지구를 식혀라2-도롱뇽의 눈물’이 예정돼 있다. 2일에는 ‘예술무대 산’이 준비한 야외 퍼포먼스 ‘페스타-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열린다. 마지막 3일에는 프린지페스티벌의 주제곡과 안무를 모티브로 광주 5개구 10곳에서 함께한 ‘100인의 예술에(愛) 시민댄스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이번 민주광장 프린지에서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있다. 우리동네 프린지 ‘춤길 퍼포먼스’의 확장판인 주제 퍼레이드극 ‘100인의 예술로 춤길 퍼포먼스, 지구를 식혀라2-도롱뇽의 눈물’ 등이 마련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